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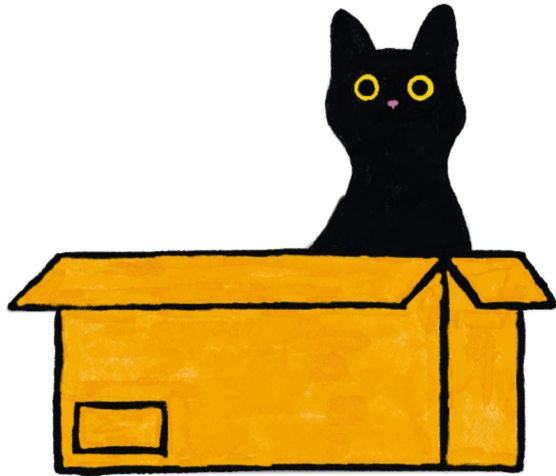






이 녀석이
나의 반려묘 까미이다.

나이는 열네 살. 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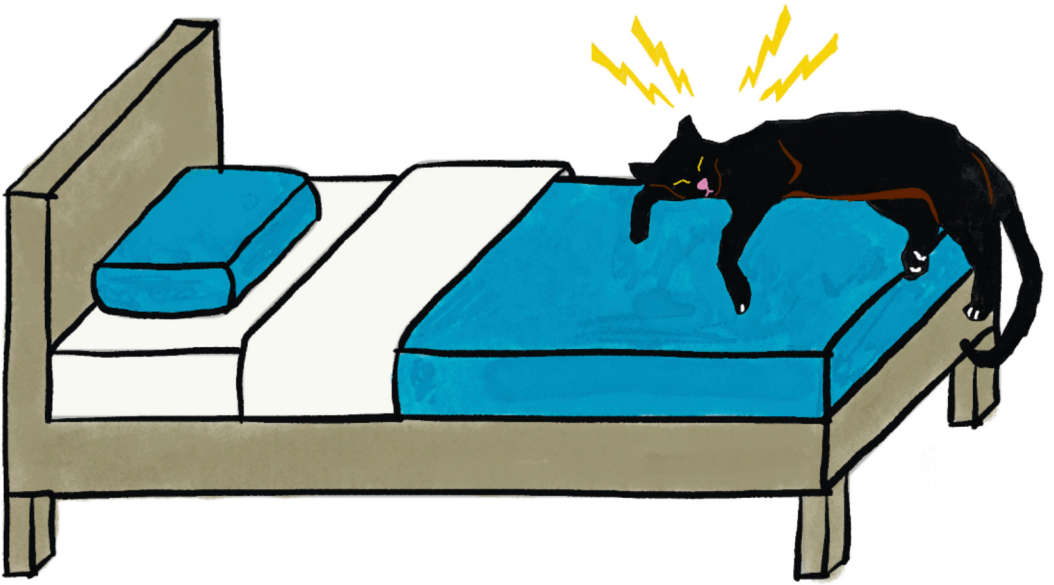
첫 만남은 기억나지 않는다.

그냥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.





까미는 보면 볼수록 웃기게 생겼다
유독 돋보이는 송곳니 🐾



까미는 잠이 많다.

코를 골며 하루 종일 잔다.





창밖 구경도 많이 한다.

까미는 움직이는 걸

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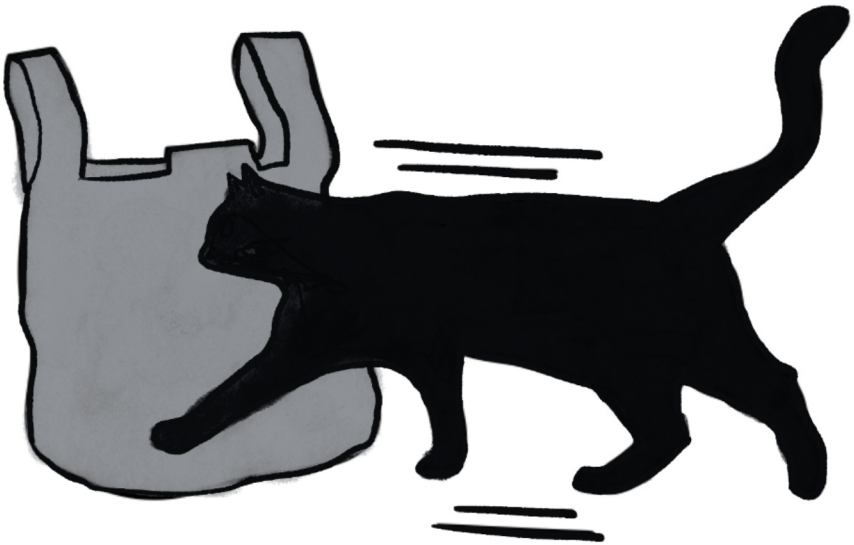


하지만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꼭 방해를 한다. 🐾



내가 틴틴이 시간을 내서 놀아주는데도 매번 그렇다. 🐾





까미는 가끔 이상한 짓을 한다. 🐾



까미는 식습관이 별로 좋지 않다.
밥만 먹고 간식은 잘 안 먹는다.

그러나 치킨은 먹는다. 🐾



까미는 자꾸 나한테 말을 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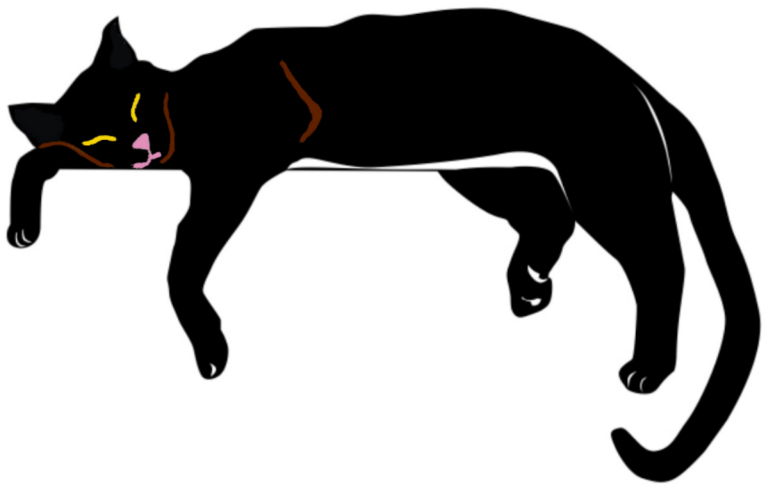
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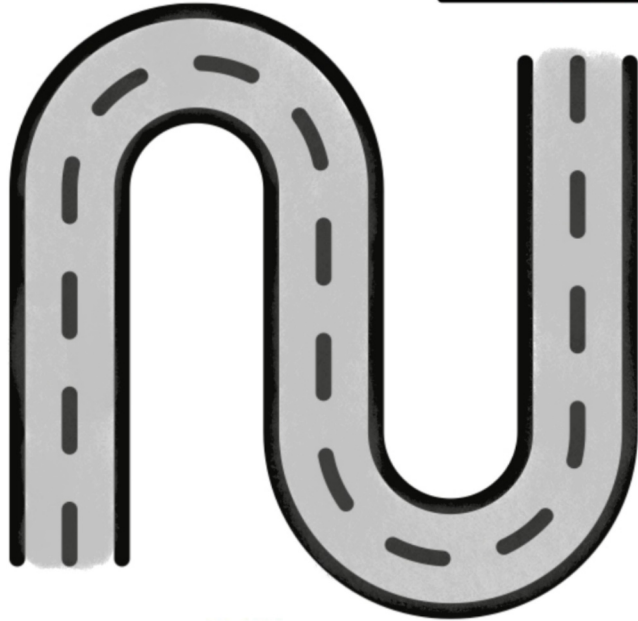


어느 날부터인가 까미는 조용했다.
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지
어디가 아픈 건지 🐾






밥 먹는 걸 좋아하는 까미는
어느 날 부터인가 사료를 먹지 않는다.
힘없이 잠만 자는 게
분명 어딘가 아픈 게 틀림없다. 🐾



까미를 데리고 곧장 동물 병원으로 갔다.


까미는 겁에 긴장했는지 말이 없다.

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.

부디 까미가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. 




까미가 오랜 시간 진료를 받고 나왔다.
의사선생님의 말씀이
암이라고 한다.

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. 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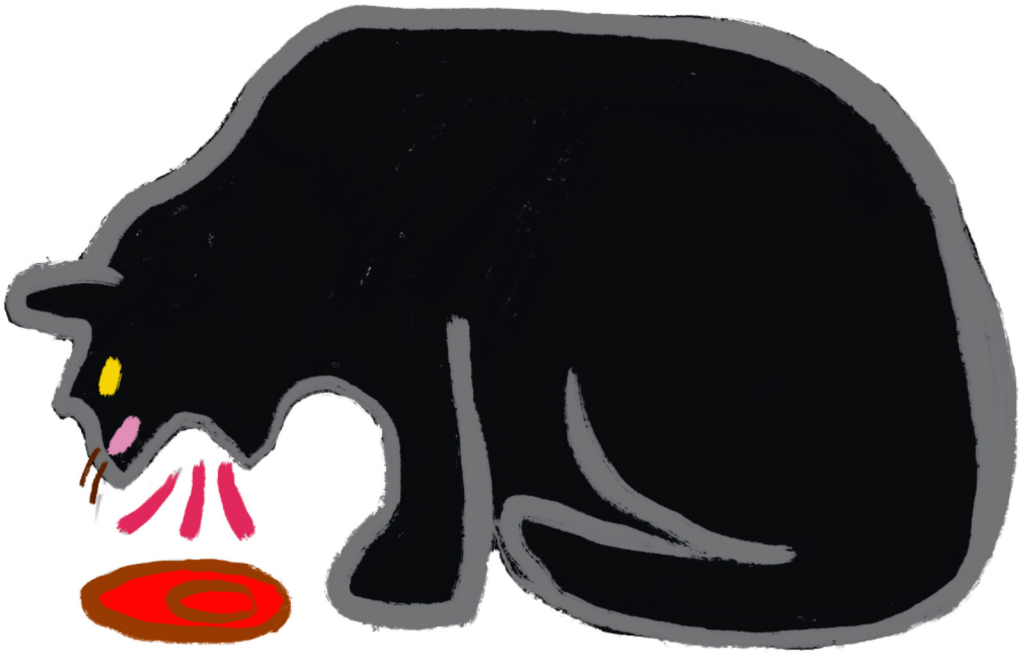
매일매일 울기를 반복한다.
그저 까미만 봐도 눈물이 나온다.

이 녀석은 내가 왜 우는지 알기라도
하는 듯이 눈물을 닦아준다. 




어느 순간 매일매일을 울었다.
까미에게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?
미쳐 생각하지 못했다

이제부터 웃는 모습으로 정성껏
까미를 돌보기로
마음을 강하게 먹었다. 



암 진단을 받고 8개월째 되던 어느 날부터
까미의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다.
그리고 일주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.

어느 날 새벽 끄끙 앓더니
피를 토하기. 



까미는

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.

목적지는 고양이별이다.


아마 지금쯤

다른 고양이들과 신나게 놀지도 모른다. 🐾



까미가 그렇게 고양이별로 여행을 떠나고
한참이 지나서

어느 날 선물이 왔다.

누군가 까미의 사진이 담긴 선물을 보내왔다.
까미가 고양이별에서
마지막으로 보낸 선물일까? 



2024 마을을 품은 그림책 고양이 별

발 행 일 2024년 11월 15일

글·그림 신흥중학교 교사 지애리

발 행 처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

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1번길 45

전 화 032-770-0112

인 쇄 몬스터북

이 책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2024 마을을 품은 읽건쓰 그림책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·제작되었습니다.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, 초, 중,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책을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남부교육지원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.

Monster
Book

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.
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이 책은 freepik.com의 이미지가 일부 사용되었습니다

